

미국 ‘예술, 인문학,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발동과 ‘대통령 직속 예술 및 인문학 위원회’ 재설립

김은형 뉴욕주립대 행정학 박사

본 브리핑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예술, 인문학,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the Arts, the Humanities, and Museum and Library Services)’과 이 대통령령에 따라 설립되는 ‘대통령 직속 예술 및 인문학 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PCAH)’를 소개하여 미국이 예술, 인문학,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를 국가의 가치 및 미래와 어떻게 연계해 이해하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떠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는지 이해하고자 함

■ 2022년 10월 ‘전미 예술 및 인문학의 달’ 선포

지난 9월 30일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0월을 ‘전미 예술 및 인문학의 달(National Arts And Humanities Month)’로 지정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프로그램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과 국립인문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에 수억 달러를 투자해왔으며,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 회복을 위한 미국구제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미 전역의 박물관, 도서관, 극장, 콘서트홀 및 기타 관련 시설에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추가 배정하였다.

■ ‘예술, 인문학,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발동

‘전미 예술 및 인문학의 달’ 선포의 일환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예술, 인문학,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증진

을 위한 대통령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the Arts, the Humanities, and Museum and Library Services)’을 함께 발동하였다. 이 대통령령 제1절에 따르면 예술, 인문학,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는

- 국가의 웰빙, 건강, 활력, 그리고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다문화적이고 민주적인 경험을 반영하는 미국의 영혼(soul of America)이라 규정되며;
- 연대와 사회통합, 창의성과 혁신,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소통, 기후변화 위기 대응, 민주주의의 강화 및 진보를 돕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문화적 활력을 고양시키는 데에 예술, 인문학,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증진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며 이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 군과 보훈자 커뮤니티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모든 커뮤니티, 그 중에서도 특히 2021년 1월 20일 대통령령 13985에 의해 정의된 ‘서비스 소외 커뮤니티(underserved community)’의 경제

발전, 웰빙,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전략, 정책,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연방정부 및 사회적 지원을 통해 서비스 소외 커뮤니티에 공정, 접근성,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예술, 인문학,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케 한다.
-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 유적지, 대학 등 관련 기관은 물론 예술가, 인문학자, 학생, 교육자, 문화유산 활동가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창의적인 문화경제를 강화한다.
- 미국의 예술 및 문화유산 보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들을 보호하고 홍보한다.
- 예술, 인문학,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민주주의 강화, 시민 참여와 공공서비스 향상, 사회통합 증진, 공정성과 접근성을 증진한다.

■ ‘대통령 직속 예술 및 인문학 위원회 (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PCAH)’ 재설립

바이든 대통령은 동 대통령령을 통해 미국 박물관및 도서관서비스협회(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 IMLS) 내에 ‘대통령 직속 예술 및 인문학 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PCAH)’ 재설립을 공표하였다. 1982년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처음 설립된 이 위원회는 2017년 8월 미국 버지니아주 샬로츠빌에서 열렸던 극우 집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반발하여 위원회 위원이 전원 사퇴한 이후 소멸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통해 재설립을 명한 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는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Arts, NEA), 국립인문재단(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 박물관및도서관서비스협회의 수장을 비롯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정부의 전임 공무원이 아닌 25명 이하의 위원(非연방 위원; non-Federal members)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非연방 위원들은 다양한 배경, 경험과 전문영역에서 선발되는 개인, 주정부 공직자, 로컬 정부 공직자, 부족 공직자로 예술, 인문학,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에서 뚜렷한 관심과 헌신을 보여 온 인물이어야 한다.

- 이외에도 의회 도서관장(Librarian of Congress), 스미소니언재단(Smithsonian Institution) 대표자,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of Art) 대표자,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John F. 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대표자가 의결권이 없는 위원으로 활동한다.
- 위원장의 경우, 대통령이 非연방 위원 가운데 1인의 위원장, 혹은 2인의 공동위원장을 임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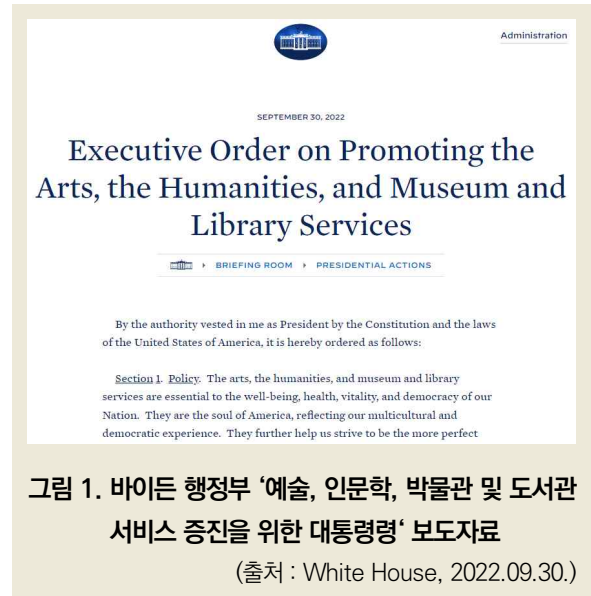
위원회의 역할은 자문에 국한되며 대통령, 국립예술기금, 국립인문재단, 박물관및도서관서비스협회의 대표자에게 다음에 관한 자문과 제언을 제공하게 된다.

- 커뮤니티의 웰빙, 경제 발전과 경제적 유동성, 공중보건, 교육, 탄력성과 적응력, 기후변화 대처, 시민 참여 및 민주적 참여, 미국의 예술 유산 및 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등 동 대통령령 제1절에 명기된 정책 목표
- 동 대통령령의 제1절에서 제시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예술, 인문학,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자선 분야 및 민간 분야의 참여 및 지원 증진
-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예술, 인문학,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의 실효성 향상
- 예술가, 인문학자, 문화유산 활동가 및 예술, 인문학,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분야의 지도자들과의 연계 강화: a) 중요 문화 행사 참여, b) 예

술, 인문학,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에서의 우수성과 국가의 사회경제적 웰빙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고취

이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박물관및도서관협회가 법이 지정한 한도 내에서 예산에 맞게 시설, 직원, 설비, 기타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자금 및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박물관및도서관협회의 모금 기구에서 모아진 민간자금은 적용 가능한 관련 법령에 맞게 위원회의 비용에 사용될 수 있다.
- 박물관및도서관협회 대표자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할 상임이사를 지정할 수 있다. 상임이사는 박물관및도서관협회 대표자에게 보고하고, 국립예술기금, 국립인문재단, 박물관및도서관협회 대표자 전원과 분기별 회의를 갖는다.
- 위원회 위원들은 무급이나, 법으로 허용되는 수준에 따라 일일경비를 포함한 출장비를 제공받는다.
- 위원회는 연 2회 회의를 갖는다.
- 매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위원회의 위원장 혹은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미션 수행, 제언, 익년의 계획에 대해 국립예술기금, 국립인문재단, 박물관및도서관협회 대표자들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 대통령이 연장을 지시하지 않는 한 본 대통령령 발효시점 2년 뒤에 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한다.
- 또한 연방정부 전 부처 및 백악관 정책위원회의 장들, 혹은 그들이 임명한 고위급 공직자들은 예술과 인문학 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의 제1절이 제시한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국립예술기금, 국립인문재단, 박물관및도서관협회 등과 함께 자문하고 협력하며 공동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를 수행해야 한다.



■ 시사점

바이든 대통령의 ‘예술 및 인문학의 달’ 선포 및 ‘대통령 직속 예술 및 인문학 위원회’의 재설립을 명한 대통령령은 미국 문화예술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미국의 3대 문화예술기관으로 볼 수 있는 미국 국립예술기금, 국립인문재단, 박물관및도서관협회는 대통령령이 발표된 즉시 성명을 내고 환영과 적극적인 참여의 뜻을 밝혔다. 이 위원회가 설치되는 박물관및도서관협회의 크로스비 캠퍼(Crosby Kemper) 협회장은 “(이번) 대통령령이 도서관과 박물관 프로그램에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할 기회”라고 언급하면서 위원회의 성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국립예술기금의 마리아 로사리오 잭슨(Maria Rosario Jackson) 위원장 역시 “국가의 건강, 경제, 공정성, 민주주의 증진에 본질적인 예술과 인문학에 대한 쏠정부적인 접근이라는 특별한 순간”이라고 평가하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립인문재단의 셸리 로우(Shelly C. Lowe) 위원장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통령령은 인문학을 고양시키고, 커뮤니티가 역사, 문학, 언어, 문화유산과의 연계를 통해 최대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문화예술정책과 미국 문화예술계의

반응은 미국이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문화예술은 국가의 공정성, 민주주의, 웰빙, 건강과 활력이라는 미국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 및 국가 동력과 잠재력의 실현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예술의 발전을 경제적 유동성과 경제발전은 물론 민주주의적 가치와 연계하여 사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19의 대유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심화된 전 세계적 경제 위기에 서도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5년 전 소멸된 대통령 직속 예술 및 인문학 위원회를 재건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의 증진을 위해 두드러진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 예산안은 6조 7,0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 감액(2022년 7조 3,968억 원)되었다. 일부 사업의 지방 이양과 코로나19 한시 지원 사업의 종료로 인한 감액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2021년의 문화체육관광부 본예산 6조 8,637억보다도 줄어든 예산이다. 소프트파워와 문화경제의 영향력이 커지는 한편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문화예술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가치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 및 예산에 대한 고찰과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전미 예술 및 인문학의 달' 선포 보도자료]

White House(2022.09.30.). "A Proclamation on National Arts And Humanities Month, 202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2/09/30/a-proclamation-on-national-arts-and-humanities-month-2022/>)

[예술, 인문학,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White House(2022.09.30.).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the Arts, the Humanities, and Museum and Library Service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2/09/30/executive-order-on-promoting-the-arts-the-humanities-and-museum-and-library-services/>)

[미국 박물관및도서관서비스협회 보도자료]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2022.10.03.). "Executive Order Re-establishes the 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Humanities Under IMLS" (<https://www.ims.gov/news/executive-order-re-establishes-presidents-committee-arts-and-humanities-under-ims>)

[미국 국립예술기금 보도자료]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2022.09.30.). "President Biden Issues Proclamation on National Arts and Humanities Month, Includes Executive Order to Promote the Arts, the Humanities, and Museum and Library Services" (<https://www.arts.gov/news/press-releases/2022/president-biden-issues-proclamation-national-arts-and-humanities-month-includes-executive-order>)

[미국 국립인문재단 보도자료]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2022.09.30.). "President Biden Issues Proclamation on National Arts and Humanities Month, Includes Executive Order to Promote the Arts, the Humanities, and Museum and Library Services" (<https://www.neh.gov/news/president->

biden-issues-proclamation-national-arts-and-humanities-month-includes-executive)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공식블로그(2022.08.30.). '2023 예산안 총 6조 7,076억 원 편성, '문화매력국가'로 도약'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cstkorea&logNo=222861842112&categoryNo=14&parentCategoryNo=14&from=thumbnailList>)

문화체육관광부(2022.02.15.). [예산자료] 2022년도 예산 개요, 각목명세서 (https://www.mcst.go.kr/kor/s_data/budget/budgetView.jsp?pSeq=893)



본 저작물을 인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형(2022). "미국 '예술, 인문학,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발동과 '대통령 직속 예술 및 인문학 위원회' 재설립".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아키스브리핑 제296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은형 eunhyoungpeace@gmail.com
ACKIS브리핑 작성 2022.10.31.

#미국 #문화예술정책 #예산#예술#인문학 #박물관 #도서관
#바이든 #대통령직속위원회